

동학 이후 근대민족운동 살피다

학술대회 개최... 역사적 고증 통한 지역 정체성 규명 독립운동 판결문 통해 보천교 독립운동 실상 공개

전라북도는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라북도도와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역사문화연구소(소장 김재영)에서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북 근대민족운동·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북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근대 민족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지역 정체성 규명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정읍시 입안면 대흥리에 본부를 두었던 보천교(普天敎)의 성격을 민족운동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동학(東學)을 계승한 항일 독립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다양한 근대 개혁(開闢)사상, 민족운동 및

민중종교가 발흥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김계 원평의 증산교, 정읍 입안의 보천교, 익산의 원불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그 역사적 고증을 통한 지역사 재조명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익산 미륵사와 김계 금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백제시대 이후 전북의 고유 전통사상인 미륵사상을 필두로, 전북인의 정신사상의 원형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역물린 백성이 새로운 시대를 요청하고, 새로운 구세주 출현을 소망하던 미륵사상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거치면서 전북지역에서 새로운 양상의 민족종교, 사상적 차원에서 전개되는데 그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보천교에 대한 재조명은 그동안 친일적인 종교, 사이비종교로서의 보천교에 대한 평가를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주목된다.

학술대회는 5개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증산과 차월곡의 개벽사상"(김방룡, 충남대 교수), "동학 이후 증산계열의 민족운동"(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 온라인 국가

기록원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중심으로"(안후상, 한국신종교학회 이사), "보천교의 독립국가 정체성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대마 시론"(남창희 인하대 교수), "일제 식민권력의 기록으로 본 보천교의 민족주의적 성격"(김철수, 중원대 교수)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문체부, '뽀로로' 등 불법 복제물 단속 1만4474건 압수·유통업자 6명 입건

'뽀로로'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 상품을 불법 복제해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서울·부산·인천·부천에 있는 불법 복제물 판매 매장을 단속해 1만4474건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불법 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복제물 수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뽀로로'와 '아이언맨' '히어로즈' '닌자고'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불법 복제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 판매업자는 물론 수입업자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D-8 광주비엔날레'

5·18 정체성 담긴 작품 대거 전시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라 가르시아 등 외국 유명작가들이 5·18광주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대거 선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다음달 2일부터 11월6일까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6광주비엔날레는 참여 작가들이 광주의 상징인 5·18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스페인 출신의 도라 가르시아(Dora Garcia)는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사랑방 역할을 했던 녹두서점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1977년 계림동에 처음 문을 열었던 녹두서점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으며 5·18 당시 격문과 투사회보 등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모습을 형상화 했다.

또 당시 녹두서점에 있었던 서자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도라 가르시아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작품과 관련한 워크숍을 열어 작품 창작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옛 녹두서점 대표인 김상윤씨와 정현애씨가 '녹두서점 토크'를 펼치고 다음달 2일에는 '들불 야화, 윤상원 열사와 파리로핀의 영향'을 주제로 1980년 당시 투사회보 제작에 참여한 내명관씨와 전영호 소설가가 참여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빅 반 데 폴(Bik van der Pol)은 오월 어머니집 수차례 방문을 통해 느꼈던 감정을 '직선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제목의 LED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오월 어머니집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LED를 통해 그들의 삶을 조명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더그 애쉬포드(Doug Ashford)는 광주민주화운동이 기억되고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했던 사진 작품을 전시한다.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은(Yun Hu) 작가는 5·18당시 계엄령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 한다는 주제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페라티바 크라터 인베르티도(Cooperativa Crater Invertido)와 야스미나 매트왈리 & 필립 리즈크(Jasmina Metwaly & Philip Rizk), 크리스티앙 니얌페타(Christian Nyampeta)도 5·18과 관련된 작품을 전시한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실패를 통해 성공을 찾아가는 법

'블랙박스 시크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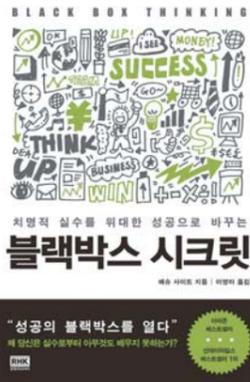
매수 사이드는 인간의 심리와 문제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기로 정평이 난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다.

그는 새로운 책 '블랙박스 시크릿'에서 실패와 성공의 상관 관계에 대해 차별화된 시각과 풍부한 사례 분석, 명확한 논리적 전개로 성공의 원리를 제시한다.

사이드는 비즈니스·경제·문화·의료·법·스포츠를 비롯한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실패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성공의 패턴을 구축한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다. 그 미묘함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며, 실패는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상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실패를 올바르게 분석해 세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의 모델과 전략, 행동을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마리를 찾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즉, 실패를 삶의 이정표로 삼자는 것이다.

혹시 '실패에서 배운다'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실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만약 망설이고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듯



하다. 사이드는 실패로부터 성공으로까지 가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항공업계의 '블랙박스'로부터 찾아냈다. 항공기에는 웬만해선 망가지지 않는 두 개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내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지시 사항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기내 조종실의 대화와 소리를 녹음한다. 사고가 일어나면 박스를 열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파헤친다. 이를 통해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수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실수를 통해 배우는 시스템이 튼튼하게 구축된 국제항공운송협회 소속의 항공사들은 사고율이 0.12건에 불과하다. /김민근 기자

완판본문화관, 교육생 모집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완판본문화관에서 2016년 하반기 완판본 서예교실과 완판본 유교교실 프로그램 성인 교육생을 모집한다.

완판본 서예교실은 붓글씨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초급자 코스부터 나만의 서체(완판체)를 연구하는 상급자 코스까지 일대일 지도방식으로 진행된다.

완판본 유교교실은 조선시대 전주에서 간행한 책(완판본) 중에서 유교서적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며, 올 하반기에는 기존에 공부하던 논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책을 선정하여 학습할 예정이다.

완판본 서예교실은 유료로 9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16주 동안 진행되며, 완판본 유교교실은 무료로 8월 30일부터 매 주 화요일 저녁 5시에 진행된다. 교육장소는 완판본문화관 지하 세미나실이다. 또한 북아트 교육프로그램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jcf.or.kr/main/wan/>)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231-2212~3.

/정해은 기자

한자순 작가 '숲의 전령' 개인전

"숲속의 나무들은 양치·읍지·평지·비탈길·벼랑 그 어디에 위치하든 변화무쌍한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전합니다. 숲의 나무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듯, 가지가 서로 엉켜 비바람에 견디어 내듯, 나무가 하늘을 향해 커가듯, 숲의 초목이 햇빛을 사랑하듯...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숲속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곳은 제게 안식을 줍니다."라고 한자순 작가는 말한다.

한자순 한자조형작가는 오는 31일까지 누벨백 갤러리에서 '숲의 전령' 개인전을 갖는다.

작가는 자연의 숲속에 펼쳐지는 다양한 형상을 헤아릴 수 없는 한지 조각의 결에 담아낸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26일)



▷쥐띠

4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인덕이 따른 운.
6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2년생: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관련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 깊게 살피고 행동하라.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때다.



▷우띠

52년생: 나를 위한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면 공이 돌아온다.
64년생: 처음에는 불화하니 나중에는 화합한다.
76년생: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이 없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寅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80년생: 먼저 배울면 배운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소띠

49년생: 처음에는 구설수와 시비가 따른다.
61년생: 자기의 주장을 관철 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이 비춰지니 주의하라.
73년생: 손윗사람과 함께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85년생: 이상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하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상대방이 나에게 걸과 속이 다르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하는 시기.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져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가볍게 던진 말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하라.



▷말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고 안에서 차게 움직이면 좋다.
81년생: 미혼자에게는 이성과 만남이나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운.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과의 디톡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피하고 상함에 따른 센스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있다.



▷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운.
78년생: 사고수와 질병수가 따른다.
90년생: 손재수가 뜨니 지출을 삼가고 미루었다가 꼭 필요한 것이 다시 생각해라.



▷개띠

46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58년생: 들어온 만큼 나가는 운.
70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2년생: 온전한 가급적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토끼띠

51년생: 적대적인 사람과의 시기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6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운이다.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
87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는 불리하다.



▷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
67년생: 이상으로 인해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한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이나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게 되니 마을 쓰지 마라.
91년생: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59년생: 지나친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한다.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라.
83년생: 옛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